

## 오스카 와일드의 나르시스적 예수의 탈

박 옥 선\*

### Oscar Wilde and His Narcissistic Mask of the Christ - figure

Ok - Sun Park\*

#### 목 차

Abstract	Ⅲ. <i>The Ballad of Reading Gaol</i>
I. 서 론	Ⅳ. 결 론
Ⅱ. <i>De Profundis</i>	Works cited

#### Abstract

This is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Oscar Wilde's narcissism through his literature, especially his last two works, *De Profundis* and *The Ballad of Reading Gaol*.

Just as the dandy-figure dominates Wilde's dramas of the nineties, the Christ - figure dominates his final two works. The Christ figure is Wilde's final mask and compensatory structure. As a result of imprisonment Wilde is deprived of an adoring public (providing Wilde with a mirroring self-object), physical love and the idealizing love of his son Cyril (providing him with an idealizable self-object). Without the compensatory mask of the dandy, and removed from all sources of narcissistic gratification, Wilde's sense of self could do nothing but crumble. So Wilde can not but try to compensate for his enfeebled state of self by donning the mask of the Jesus.

Wilde constructs the mask of the Christ-figure in *De Profundis* by a dual process of introjection and projection. On the one hand, he tries to make himself Christ-like, that is, to introject the ideal of Christ. In addition to this, the mask of the Christ - figure is in part formed by Wilde projecting his beliefs onto Christ. But Wilde's

\*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조교수 영문학(영시) 전공

attempt to use the mask of the Christ-figure to compensate for narcissistic anxiety(the effects of his vertically split nuclear self) is not successful. In taking Christ as the idealizable object, Wilde's desire to be Christ-like collapses the bipolar distinction between the grandiose self and the idealized self. The nuclear self not only remains split, but the grandiose self is actually fortified in its non-integration with the idealized self, which was precisely the problem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the poem. *The Ballad of Reading Gaol*, the central figure, the murderer, is a kind of modern day messiah.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poem increasingly identify the narrating prisoner with the murderer. The narrator is unable to effect the same christological transformation as the murderer. He desperately desires to become one with Christ - to have his heart break, thereby allowing Christ to enter him - but he is unable. This is in a way similar to Wilde's desire to become one(with himself) through Christ, or more precisely, through donning the mask of the Christ-figure.

Wilde turned to the mask of the Christ figure to secure his sense of self, however, the mask reinforced the split it was called upon to suture.

## I. 서 론

Arthur Symon의 *The Symbolist Movement in Art*를 시발점으로 해서 최근의 연구인 Regenia Gagnier의 *Idylls of the Market Place*와 Richard Ellmann의 *Oscar Wilde*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에서 우리는 Oscar Wilde의 문학과 그의 문학적 자아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곧 댄디리즘, 심미주의, 죄transgression이다.

이 가운데 심미주의와 댄디리즘에 대한 와일드의 몰두는 그의 생애의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죄의 문제를 다룬 것은 말기 작품에 두드러져 있다. 정신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평가들은 이들 요소들을 와일드 자신의 나르시스적 자아추구와 연관시키고 있는데 Kohl은 와일드를 "Narcissus gazing at the reflection of his countenance from all angles"(Kohl, 318)이라고 말하고 있다. 와일드가 자신의 문학을 도구로 일생 동안 나르시스적 자아추구를 하면서 보여준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 특히 죄의 문제는 그의 욕망기와 장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1895년 5월 25일 오스카 와일드는 Lord Alfred B. Douglas와의 동성연애 사건으로 기소되어 2년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는다. 형을 언도하면서 판사가 "당신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가장 광범한 타락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다." (Ellmann, 477)고 하면서 자신이 재판한 가장 사악한 사건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가혹한 판결과 결합되어 와일드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와일드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회에 대항해서 자신의 역사적 자아를

찾아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나르시스적 자아추구의 도정에서 비록 댄디의 탈mask이 격분한 사회에 의해 완전히 찢겨 나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와일드는 또 다른 탈을 찾아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와일드가 새로운 마지막 탈을 예수의 탈로 설정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고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를 그의 마지막 작품인 *De Profundis* 와 *The Ballad of Reading Gaol*<sup>1)</sup>을 통해 추적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초점이다.

와일드의 90년대의 희극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댄디의 탈이라면 예수의 탈은 바로 이들 마지막 두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Epistemology of the Closet*에서 와일드와 니체를 논하면서 Eve Sedgwick은 *Profundis*와 *Gaol*에서 와일드가 그리스도를 확대 이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The squeam-inducing power of texts like the *De Profundis* and *Reading Gaol* – and I don't mean to suggest that they are a bit the less powerful for often making the flesh crawl – may be said to coincide with a thematic choice made in each of them : that the framing and display of the male body be placed in the explicit context of the displayed body of Jesus.(Sedgwick, 148)

그러나 와일드의 예수의 상Christ-figure이용은 에로틱한 의미보다는 그 기능과 관련이 있다.(Goodman, 205) 이것은 와일드가 자기 자신에게 일관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급격히 퇴락하는 자신의 심리적 궁경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의 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예수의 상은 와일드의 나르시스적 심리의 약점에 대한 보상구조로서의 탈인 것이며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와일드의 예수의 상 이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와일드가 자아를 발견하는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의 상은 그러나 완화되었다고 여겨지는 나르시스적 상처를 사실상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어쨌든 와일드의 예수의 탈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시점을 1895년 10월 15일로 잡을 수 있다. 이날 와일드는 췌장 치료를 위해 Wandsworth 감옥에서 부속 진료소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2개월간 머물렀고 사실상 췌장보다는 정신 쇠약 증세를 더 많이 치료받게 된다. 와일드에게 가해진 억압과 고통은 적어도 신체적인 것 만큼이나 심리적으로도 컸던 것임을 말해주는 사건인 것이다.

투옥되면서 와일드는 당연히 예술가와 사회 명사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의 댄디로서의 개성적 행위에 대한 사회의 열광은 하루 아침에 강한 혐오감으로 돌변해 버린다. 전 생애를 통해 세인의 이목의 중심에서 있던 나르시스스트 와일드에게 이러한 급작스럽고도 맹렬한 사회로부터의 추방은 무서운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의 더 깊은 상실이 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이것은 중요한 나르시스적 의미의 박탈이다. 와일드는 큰 아들 Cyril과의 관계를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 *Profundis*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1) 앞으로 이 두 작품은 각각 *Profundis*와 *Gaol*로 표기한다.

2) 예수의 심상은 와일드의 초기시 *Poems*(1881)와 "The young King" "The Selfish Giant" 등에도 나타나지만 예수와의 동일시가 지배적 이미지로 나타난 작품은 위의 두 작품이다.

I could not bear the idea of being separated from Cyril, that beautiful, loving, lovable child of mine, my friend of all friends, my companion above all companions, above single hair of whose little golden head should have seen dearer and of more value to me than, I will not say merely you(Douglas) from head to toe, but the entire chrysolite of the whole world.(CW, 900)

이상하게도 와일드는 둘째 아들 Vyvyan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감옥에서 More Adey로 보낸 한 편지에서 아버지의 지위상실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와일드는 Cyril은 언급하고 있지만 Vyvyan에 대한 언급은 없다.(Constance는 당시 와일드가 자식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서류를 입수했다고 알려져있다.)

Cyril과의 관계를 상실하는데 따른 고통이 Vyvyan과의 관계보다 더했음은 분명한 것 같다.

Now that the children are publicly taken from me by a judge's order, and it is decided that I am unfit to be with Cyril, I am very disheartened : all I want is peace : all I ever wanted was peace.(Letters, 534)

Kohut이 지적했듯이 심한 나르시시적 결함을 지닌 부모는 흔히 그 결함을 메꾸기 위해 그들의 자식을 이용한다<sup>3)</sup>. 부모가 자식의 욕구를 반영하기 보다 자식이 부모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보면 Cyril에 대한 와일드의 강한 사랑과 Vyvyan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Cyril과의 관계가 이러한 나르시시적 결속에 의해 특징지어졌다고 보아진다. Cyril의 존재, 그를 바라보는 것, 그에 대한 사랑 등은 와일드에게 그가 필요로 했던 숭고한 자아를 부여했다. 따라서 와일드와 Cyril의 관계는 와일드와 사회의 관계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두 관계가 모두 와일드에게 고품의 숭고한 자아를 갖게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들 결속 관계를 갈라놓은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투옥의 결과 와일드는 그의 위트와 지식에 대한 칭찬, 그에게 매료당한 대중, 육체적인 사랑, 아들에 대한 이상적인 사랑을 빼앗겼다. 특히 이상화할 수 있는 자아의 대상을 와일드에게 부여해 준 것이 바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빼앗긴 것이다. 나르시시적 욕구가 극히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박탈은 극한적인 쇠약상태이다. 와일드의 회극에서 볼 수 있는 보상을 위한 덴디의 탈도 없고 나르시시적 만족인 모든 원천을 박탈당함으로써 와일드의 자아인식은 허물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바로 1895년 10월의 정신쇠약증세의 원인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와일드는 자기 역할의 모델로서 예수의 상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약화된 입지에 대한 보상을 시도했다. Profundis에서 와일드는 “인간은 누구나 일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그리스도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간다.”(CW 934)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Profundis와 Gaol을 와일드가 그리스도와 의 산책을 위한 시도,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한 시도의 좌절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상으로 자신의 응집력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와일드의 시도가 어떻게 그의 문학속에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see Heinz Kohut, “The Two Analyses of Mr. Z.”,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1979) 60, 3 : 3 - 28.

물론 와일드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는 여러 비평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비교적 검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은 와일드가 Profundis에 하나의 외관으로서 그리스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와일드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다소 동일시하고 있는 그 무모함이다. Winchell은 바로 이 무모함을 주목하면서 이 서신을 자기성인전(Autohagiography)<sup>4</sup>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문을 일으키는 용어이다. 그 하나는 와일드가 자기자신을 성인화 하기 위해 어떻게 자서전의 형식을 이용했는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가 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비평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Philip Cohen은 Profundis에서 와일드가 자신을 광범하게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피상적인 고찰 이상의 비평적 공헌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서신에서 당시 와일드가 자기에게 어떻게 메시아의 역할을 부여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Douglas를 반 그리스도로 설정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Cohen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와일드에게 하나의 특정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모방을 통한 성인다운 인격성취라는 와일드의 이상은 내면으로부터 생성된 자기중심 다시 말해서 전통에 의해 인정된 예형론적 정체성 typological identity과 사회적 정체성도 동시에 제공했다”(Cohen, 258)는 것이다. 나아가 Cohen에 의하면 이러한 정체성은 와일드 자신의 절대적인 진실에 달려 있다. 또한 와일드의 예수 모방은 그에게 자신의 처지와 자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완전한 순수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와일드는 상황이나 자아 모두를 평가함에 있어서 순수하고 진실하다고 만든 결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와일드는 시종일관 피상적인 도덕적 우월성의 입장을 가장하고 있다. 그는 “시궁창과 그 속에 사는 것들이 그대를 매혹시키기 시작했다”(CW 874)고 서신의 서두에서 더글러스에게 말하고 있다. 시작했다라는 단어는 사실 더글러스보다는 와일드에게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더글러스가 그가 있었던 인생의 어느 지점이 아닌 전혀 다른 지점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나 와일드는 더글러스와의 불미스런 관계를 통해 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몇 페이지 뒤에 와일드는 더글러스를 방탕하고, 무분별하게 사치하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한다고 비난한다. 와일드는 Whitman을 인용하면서 더글러스에게 “검소한 생활과 수준 높은 사고가 당연히 그대가 그 당시에는 감사할 줄 몰랐던 이상이였다”(CW, 877)고 일러준다. 그러나 “Nothing succeeds like excess”라는 자기나름의 댄디리즘의 금과옥조에 따라 생활해왔던 와일드가 이런 말로 더글러스를 비난한다는 것은 설득력은 커녕 오히려 위선을 과시하는 꼴이 되고 있다.

Profundis에는 그런 순간들이 여기 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서신에서 와일드의 진실성과 순수함을 알기 위해 그의 의도를 분석한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그의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를 분석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와일드가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을 예수의 가면을 벗고 내면적 의도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아이해에 도달한 것

4) James Winchell, “Wilde and Huysmans : Autonomy, Reference, and the Myth of Expiation”, in Gagnier, *Critical Essays*, 236

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가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Cohen의 분석을 역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이해를 이끌어내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Cohen은 와일드가 *Profundis*의 집필에 있어서나 그의 몇년간의 여생에 있어서나 그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의 상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와일드의 이상화된 자아개념(Christ)과 그의 실현 능력 사이에는 상당한 단절이 있다”.(Cohen, 258)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서 와일드가 그 자신의 이상대로 살 수 없었던 이유에는 사회에 대한 그의 필연적인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Although he could triumph over society through the strategies of *De Profundis*, he could neither do without its amenities nor shrug off its condemnation... His enduring view of life as a performance with its emphasis on audience reaction indicates the continuing concern for a place before the public.(Ibid, 259)

여기서 와일드가 청중으로부터의 갈채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나르시시적 결핍이 여전히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Lawrence Goodman은 Cohen이 이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와일드의 인격과 가면으로서의 예수의 탈의 동일시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Goodman, 212)따라서 와일드의 나르시시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으로써 첫째 예수의 탈을 만들어내는 *Profundis*의 수사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Gaol에서 와일드를 시시한 존재로 판정해버리는 그 예수의 탈에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어진다.

## II. *De Profundis*

이 서신에는 신경증에 저항하는 자아를 조성하고자 애쓰는 와일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Gagnier는“와일드의 서신에 나타나 있는 자아는 감옥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물리적 기반, 즉 제한되고 분할된 공간과 무시간성에 대한 특별한 상상적 저항행위에서 조성된 자아이다”.(Gagnier, 179)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Goodman은“와일드의 저항행위를 심리적으로, 즉 억압과 나르시시적 고뇌의 부식력corrosive force 을 저지하려는 그의 결사적인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 Goodman, 213)

우선 Gagnier의 해석을 보자.“감옥의 물리적인 환경이 이 작품의 형식과 스타일을 결정했다”.(Gagnier, 179)고 그는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서신의 불안한 문체, 즉 로맨스와 리얼리즘 사이를 끊임없이 오락가락 하는 문체를 와일드가 그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기법이라고 믿고 있다.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 압도당하기보다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낭만적 환상을 구축하기 위해 그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서신에서 로맨스와 리얼리즘, 즉 로맨스와 재정문제 따위

의 현실 사이를 끊임없이 변환하는 것은 와일드가 감옥관료와 감옥의 어쩔 수 없는 침묵에 의한 그의 독특한 스타일에 부과된 위협들을 극복하는 전략이었다”(Ibid, 179)고 Gagnier는 주장한다. 그러나 Goodman은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해석은 와일드에 있어서의 이 서신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와일드가 로맨스와 리얼리즘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에게 그의 억압적 현실 극복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해주는 상상적 공간을 이 서신이 열어 놓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서신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More Adey에게 보낸 별도의 편지에 나타난 텍스트에 관한 와일드 자신의 설명을 보자.

It is the most important letter of my life, as it will deal ultimately with my future mental attitude towards life, with the way in which I desire to meet the world again, with the development of my character : with that I have lost, what I have learned, and what I hope to arrive at. At last I see a real goal toward which my soul can go simply, naturally, and rightly. Before I see you and Robbie(Ross) I must finish the letter, that you may understand what I have become, or rather desire to become in nature and aim.(밀줄, 필자)(Letters, 419)

분명히 이 서신은 Gagnier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와일드에 있어서 단순한 방어 메커니즘 이상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Profundis는 와일드의 여생을 위한 하나의 청사진 내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 Vita Nuova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서신의 바로 이러한 특질 즉 와일드가 열망하는 신생에 대한 명백한 표명이 와일드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 긴 명상을 하게 한다. 이 명상이야말로 강력한 정체성의 모든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와일드는 예수와 자기자신을 비교 설명하면서 “I am one of those who are made for exceptions, not for laws” … “For Him(Christ) there were no laws : there were exceptions merely”(CW, 914, 931)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예수의 상은 와일드가 자기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만약 앞에서 열거한 바 있는 엄청난 나르시스적 상실과 그로 인한 자아의 약화라는 심리적 기반을 포함시키기 위해 Gagnier가 설명하는 물리적 기반 physical matrix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서신의 결정력에 관한 견해를 확대해 본다면 이 서신의 와일드 개인의 의미와 그의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는 둘 다 한 장 갑속의 한 손처럼 합치되어 버리게 된다.

특히 Profundis에서 우리는 와일드가 또 하나의 탈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예수의 탈인데 이것은 약화된 자아 인식을 응집력 있는 자아인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와일드는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 상의 탈을 두가지 과정 즉 내부화 introjection와 투사작용 projection에 의해 만들고 있다.(Goodman, 216)

한편으로는 예수의 이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와일드가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일존재로 설명하는 말의 선택과 더글러스를 용서하는 텍스트의 중심행동에서 명시되어 있다. 물론 Profundis는 고백록은 아니다. 그는 자기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더글러스를 비난하고 그런 다음 예수가

그의 배반자들을 용서했듯이 그를 용서함으로써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그의 용서의 행위가 의미를 갖게하기 위해서 와일드는 자신의 이불을 더글러스에게 옮겨 덮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sup>5)</sup>. 이 일을 위해 와일드는 자기가 완전히 더글러스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내 의지력은 절대적으로 너의 의지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너의 의지가 모든것을 지시했다”.(CW, 877, 879)고 적고 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의 운명을 위해 더글러스에게 “3년 가까이 그대는 모든 면에서 나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CW, 899)고 하면서 계속 비난한다. 와일드는 자기를 멸망시킨데 대해 더글러스를 비난함과 함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더글러스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o you think I am here on account of my relations with the witnesses on my trial? My relations, real or supposed, what people of that kind were matters of no interest to either the Government or Society to put your father in prison.(CW, 902)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와일드의 몰락이 Queensbury와의 소송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세차레의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와일드의 수난은 그의 불미한 행적에 대한 사회의 격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는 와일드와 더글러스의 실질적 관계나 짐작된 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더글러스에 대한 비난은 단지 와일드의 마음속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와일드의 목적은 더글러스를 비난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용서하기 위해 비난하고 있다. 와일드는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

And the end of it all is that I have got to forgive you. I must do so. I don't write this letter or put bitterness into your heart, but to pluck it out of mine. ... I shall really have no trouble in forgiving you. ... When you really want it(forgiveness) you will find it waiting for you.(CW, 912, 914)

요컨대 와일드 자신이 가능한 한 도량이 넓고 예수처럼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고통의 책임을 더글러스에게 전가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 상의 탈은 예수의 이상을 받아들임으로써(introjection)형성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투사(Projection)함으로써도 일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rofundis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와일드의 명상은 와일드 자신에 대한 명상 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와일드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개인주의의 예언자로 자처했다<sup>6)</sup>.

그런데 그리스도를 개인주의의 최고권자(CW, 925) 로 지칭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chief war was against the Philistines”(CW, 932)라고 주장함으로써 전투태세의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에 투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Cohe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

5) 옮긴다는 의미는 물론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일종의 투사작용이다. 그러나 와일드가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 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이 투사(옮김)는 대상(그리스도)의 내부화를 용이하게 한다.

6) 와일드는 맨디였으며 맨디리즘의 전파에 진력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맨디리즘의 최고 강령은 바로 속물주의의 배격과 함께 개인주의이다.



이 와일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장에서 병사들이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걸고 내기를 거는 상황을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개인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듯이 보인다.(Cohen, 243 - 5)

예수의 모습을 예시하면서 와일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의 노래마저도 감옥에 갇힌 와일드 자신의 묘사와 흡사하게 들린다. "He i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CW, 928)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전체를 통해 와일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힌다고 주장한다. 이태리 아씨씨의 성 프란시스의 그리스도적 변형을 언급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처럼 되었다".(CW, 933)고 이 부분을 끝내고 있다.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성 프란시스가 참된 "예수의 모형"이 되었다는 것을 와일드는 자신의 예수에 대한 이해를 우월한 것에 빚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그는 그 자신의 변형을 꾀한다. 내부화와 투사의 결합을 통해서 와일드는 그리스도의 가면, 다시 말하면 Adey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바의 그가 "되고자 원하는 것"을 그에게 제공해 줄 가면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와일드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더글러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의 결정적인 문장에서 와일드는 자신과 더글러스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I have now written, and at great length, to you in order that you should realize what you were to me before my imprisonment, during those three years' fatal friendship : What you have been to me during my imprisonment, already within two months of its completion, almost : and what I hope to be to myself and to others when my imprisonment is over.(CW, 948. 밑줄 필자)

이 문장의 논리는 혼란스럽다. 한 편으로 보면 이 문장은 더글러스의 자아 완성을 일깨우기 위한 시도에 그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더글러스의 자아완성이 아니라 와일드 자신의 자아완성을 언급하면서 끝맺고 있다. 이 문장의 첫 2/3는 더글러스를 겨냥하고 있다면 마지막 1/3은 와일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 더구나 각 절의 주어가 시간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과거와 현재는 더글러스가 주체/대리자의 위치에 있는 반면에 미래는 와일드가 주체/대리자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와일드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은유로서 이 문장의 통사구조를 본다면 그의 자아인식이 과거(더글러스를 비난)와 현재(그를 용서)에 관해서는 더글러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와일드가 자신의 자아인식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래뿐임을 알 수 있다.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서로 간섭하는 구조는 예수의 탈을 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식으로 이 서신의 역학을 이해한다면 Gagnier의 텍스트에 관한 설명을 재음미해 볼 수 있을것이다.

예수의 탈을 발전시키고 가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Gagnier가 생각하고있는 것과는 다른, 로맨스와 현실 사이의 텍스트 상의 관계를 알게 해 준다. 이 둘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강화시켰다기 보다는 텍스트가 둘을 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노력은 이루

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와일드는 그리스도의 낭만적 이미지와 더글러스와의 관계라는 현실이 융합될 때 응집력 있는 자아인식을 즐기게 될 것이다.

와일드는 Profundis에서 더글러스에 대해 그리스도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싶어한다. 즉 그는 메시아가 인간을 용서한 것처럼 자기도 더글러스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한다. 와일드가 일관된 자아인식을 터득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비참한 죄수이기 보다는 자기를 배반한 적을 용서하는 희생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에 나타난 와일드의 더글러스에 대한 비난은 사랑의 용서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용서가 더글러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와일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로맨스와 현실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은 와일드가 어느 정도로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와일드 스스로도 이 점을 시인하고 있다. 서신의 말미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What lies before me is my past. I have got to make myself look on that with different eyes... How far I am away from the true temper of soul, this letter in its changing, uncertain moods, its scorn and bitterness, its aspirations and its failure to realise those aspirations, shows you quite clearly.(CW, 957)

그러면 예수의 탈은 왜 와일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의 초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평범한 진리 즉 어떤 인간도 예수만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설명 이면에는 하나의 보다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 있다. 그것은 곧 나르시시적 인격성 질환과 예수의 탈이 갖고 있는 특수한 보상구조의 관계가 갖고 있는 이유이다. Kohut이 "The two analyses of Mr. Z"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르시시적 질환의 구조적 문제는 환자의 심리구조의 수직분열을 포함하고 있다. 프리드식 모델이 나르시시즘 증상을 오이디푸스적 물질이 억압되어 있는 수평분열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Kohut의 자아심리 모델은 수직분열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숭고한 자아와 이상화된 자아의 두 기둥을 반쪽으로 분리된 자아는 더 이상 의식도 무의식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나르시시즘의 모델을 야기시키는 것은 오이디푸스적 갈등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핵자아 nuclear self이다. 통합되지 못한 자아는 지나치게 당당하고 과시적인 행

도해 1

프로이드식 모델

과장된 숭고와 오만  
(상상적 오이디푸스적 승리에 기인)

---

억압장애

---

거세의 고뇌와 억압  
(실질적 오이디푸스적 패배에 기인)

도해 2

자아심리의 모델

지나친 오만	수 직 분 열	자아 평가절하 이상적인 자아
숭고한 자아		

동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상화된 자아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자아 평가절하의 원인이 된다. 수직 분열의 원편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른쪽은 자기 확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의식적/무의식적 분열은 인간이 자기자신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느끼는가와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와일드의 경우 나르시스적 고뇌가 그의 수직으로 분열된 핵 자아에서 결과되었다고 보고 와일드가 나르시스적 고뇌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의 탈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분석해 보자.

와일드는 파편화되고 분해되어버린 무력감을 기만하고 자아인식을 일관된 아이덴티티로 재배치시킴으로써 자신의 분열된 핵자아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Goodman, 223) 그런데 그의 마지막 탈인 예수의 탈은 당당한 자아를 어쩔 수 없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아가 그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선한 신자를 부추기지만 그것은 또한 불가능을 인식한다는 맥락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만큼 완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직자가 있고 고해실이 있으며 용서가 있다고 본다면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다음을 성취해 보겠다는 것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다. 따라서 예수의 탈은 그것이 분명히 와일드에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핵자아의 파편화를 기만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강요하고 만다. 예수를 이상화의 대상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와일드가 예수처럼 되겠다는 욕망은 숭고한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사이의 두개 기둥의 구별을 무너뜨린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상적인 자아의 축은 숭고한 자아를 구현함으로써만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핵자아는 분열된 채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숭고한 자아는 이상적인 자아와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숭고한 자아만이 있었을 뿐, 분명히 애초부터 그것은 나르시스적 인격 질환을 배태하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다. 예수의 탈은 그 내면에 구축된 억제되지 않은 숭고함을 갖고 있었고 와일드의 이 마지막 보상구조는 자아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아의 분열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악화를 위해서였건, 개선을 위해서였건 이것은 와일드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갈등을 이해한다면 그가 옥중 경험을 바탕으로 쓴 마지막 걸작시 *The Ballad of Reading Gaol*에 팽배해 있는 메시아적 열망과, 그 분열의 걸맞지 않은 혼합과, 또한 이 시의 끝 부분에 가득 차 있는 무익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The Ballad of Reading Gaol*

이 시의 중심 인물인 살인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의 메시아이다. 이 시의 수사에 의하면 그는 누구나가 범하는 그런 죄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했다. 이 시의 반복구refrain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Yet each man kills the thing he loves,  
By each let this be heard.(CW, 844)

누구나 살인을 하지만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사나이는 그의 죄값으로 사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의 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를 위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입부에 나타나 있는 이 살인범의 결의에서 그는 “그의 떨리는 뺨에 가야바 Caiaphas의 입맞춤을 느끼지”(CW, 845)않는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책임이 있다는 가야바에 대한 인유는 독자로 하여금 이 시의 서두부터 이 살인범이 바로 그리스도 상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게 한다.

지금까지의 Gaol에 대한 비평은 이 살인자의 메시아적 모습에서 와일드의 새로 발견한 세계관 Weltanschauung으로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Merle의 경우 시인의 중심 이념이 보편적인 유죄에 관한 주제임을 주장함으로써 살인자/예수의 처형에 있어서의 시인 자신의 공모에 대한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an Juan, 219) 이와 비슷하게 San Juan 역시 시인의 생존 철학을 추론하기 위해 공통범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Ibid, Chapter 6) 물론 이 시가 사회, 범죄, 법률 따위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표명하기 위해 시인 자신의 옥중 경험을 이용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는 와일드의 투옥 기간에 한한 보다 좁은 시각에 맥락 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시는 그의 심리적 투쟁 내지는 불안한 정신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의 구조가 위에서 말한 분열된 자아의 역학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를 유의해 보아야 한다. 숭고한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심리적 분열은 살인범/예수와 네레이터와의 관계에서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의 짜임은 이 두 실체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둘은 하나의 단일 주체에 원래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와 살인범을 하나의 실체로서 합치시키려는 이 시의 노력을 살펴 보자.

Gaol은 살인범과 네레이터의 구별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네레이터인 죄수의 상상속에서 대부분의 시의 행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시는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두번째 부분의 끝에 이르러서야 화자인 죄수는 자기가 살인범의 최후를 보았다고 말한다.

At last the dead man walked no more  
Amongst the trial man,  
And I knew that he was standing up  
In the black dock's dreadful pen,  
And that never would I see his face  
For weal or woe again.(CW, 847)

그러나 살인범의 심리상태에 대한 그의 통찰, 개인적인 확신, 심지어 행동마저도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세번째 부분부터 그가 보고하는 장면들이 그의 상상의 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살인범의 경험은 그래서 화자의 경험 속에서 결합된다. 더구나 이 시의 언어와 심상은 화자인 죄수와 살인범을 끊임없이 동일시한다. 화자가 그 살인범을 보면서 그에 대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살인자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다.

I walked, with other souls in pain,  
Within another ring,  
And was wondering if the men had done  
A great or little thing.(CW, 843)

그 뒤에 이어지는 몇 개의 연stanza에 나타나 있는 화자인 죄수와 살인범의 구별은 시의 언어 때문에 다소 약화되어 버리고 만다.

And I and all the souls in pain  
Who tramped the other ring,  
Forgot if we ourselves had done  
A great or little thing.(CW, 846)

마침내 살인범이 처형당한 뒤 화자는 다른 죄수와 함께 그 살인자의 특징을 추측한다. 살인자는 “I never saw a man who looked/so wistfully at the day”(CW, 845) 라고 묘사되고 있다. 당일 아침 처형장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다.

Out into God's sweet air we went,  
But not in wanted way,  
For this man's face was white with fear,  
And that man's face was grey,  
And I never saw sad men who looked  
so wistfully at the day.(CW, 853)

화자와 살인범의 동일시는 처형장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마지막 몇시간 사이에 가장 강렬하다. 화자는 “나는 내가 내 번호가 매겨진 무덤 속으로 더듬거리며 걸어 들어가듯 몸을 떨었다”(CW, 849) 고 말한다. 화자의 감옥을 무덤으로 바꾼 것은 살인범의 처지에 자신을 상징적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자기의 무덤 속에서 화자는 밤을 새우며 그 살인범의 공포를 느끼고 그의 죄를 실감한다. 화자는 살인범의 메시아적 지위에 자신을 두기 시작한다. 자신의 철야를 설명하면서 “The troubled plumes of midnight were/ the plumes upon a hearse/ And bitter wine upon a sponge/Was the savour of Remorse”(CW, 850) 라고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 준 스폰지에 적신 포도주에 비유한 것이다. 고요한 긴 밤을 보내고 살인범의 마지막 비명이 감옥의 공기를 찢을 때 화자의 내면에서 그의 죽음이 시작된다.

And all the woe that moved him so  
That he gave that bitter cry,  
And the wild regrets, and the bloody sweats,  
None knew so well as I :  
For he who lives more lives than one  
More deaths than one must die.(CW, 853)

이 순간 두 인물은 합치된다. 숭고한 자아와 이상화된 자아가 나르시스적 인격 질환에서 서로 분열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자아의 필수 성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범과 시인(화자인 죄수)은

서로 다른 감방으로 갈라지지만 전체의 일부인 것이다. 이 두 성격은 원래 하나의 주체 안에 있던 것이다. 와일드가 이런 관점에서 이 두 인물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결합보다는 반목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점에서 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살인범의 시체는 이렇게 해서 와일드의 대담한 예수모방이 상징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예수의 정신적 특질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고 있다. 예수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는 살인범의 시체를 예수로 대체시킴으로써 재현된다. 빌라도 앞에서 매질과 조롱과 발가벗기면서 잔인하게 예수를 다루는 병사들의 태도는 다음 연에서 재현된다.

The warders stripped him of his clothes,  
And gave him to the flies :  
They mocked the swollen purple throat,  
And the stark and staring eyes :  
And with laughter loud they heaped the shroud  
In which the convict lies.(CW, 856)

또한 예수가 입어야 했던 자춧빛 옷이 살인범의 자춧빛으로 명든 목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아리마데의 요셉이 갓 파놓은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옮겨 놓은 상황과 꼭 같이 살인범의 시체는 새로 판 무덤으로 가져간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시체가 부활하기까지 무덤에 있었던 사흘은 살인범의 무덤이 불모지로 방치된 3년으로 대체되어 있다. 3년이 지나면 그 무덤은 꽃을 피울 것이라고 암시한다.

Out of his(the murderer's)mouth a red, red rose!  
Out of his heart a white!  
For who can say by what strange way  
Christ brings his will to light,  
Since the barren staff the pilgrim bore  
Bloomed in the great Pope's sight?(CW, 855)

그러나 살인범의 시체가 성스러운 취급을 받는다 해도 이것은 화자의 고뇌를 증폭시킬 뿐이다. 그 다음은 지옥 같은 감옥생활의 설명으로 이어진다.

The vilest deeds like poison weeds  
Bloom well in prison - air ;  
It is only what is good in Man  
That wastes and withers there.  
Pale Anguish is the heavy gate,  
And the Warder is Despair.(CW, 858)

그러나 최악의 감옥생활은 하나의 심리현상이다. 살인범의 시체에 대한 설명은 죄수의 심리 설명으로 대체되고 있다. 죄수가 감옥에서 견뎌야 하는 잔인한 취급은 그의 마음을 돌로 바꿔 놓는다. "For what chills and kills outright/Is that every stone one lifts by day/Become one's heart by night"(CW, 858) 그러나 바로 이것이 이 시의 최후의 소망성취를 설정하고 있다.

시인은 신의 영원한 법칙은 “are kind/And break the heart of stone(CW, 859)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한 가슴이 친절하다는 것은 일견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혼동은 그 다음의 댓귀 “How else but through a broken heart/May Lord Christ enter in?” (Ibid)에서 즉시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이 분열은 예수의 모든 것을 표용하는 사랑에 의해 즉시 봉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6연을 더 계속해서 살인범의 죽음을 슬퍼하고 Gaol에 묻혀있는 그 수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애도하는 마지막 부분은 화자의 맹세가 헛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적인 변형을 피할 수는 없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럼으로써 예수가 자기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즉 예수의 탈을 씌으로써 와일드가 자아완성을 열망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화자가 그리스도 상과의 통합을 이룰 수 없음은 와일드의 마지막 탈인 예수의 탈에 의해 실제로는 오히려 강화되고 만 자아분열을 생각해 보게 한다. 역설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이 역설적으로 그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와일드는 자아인식을 얻기 위해 예수의 탈로 전환을 모색했으나 그 탈은 봉합을 위해 자초했던 분열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말았다.

#### IV. 결 론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나르시시적 자아 분열을 치유하고 자아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초기에는 덴디의 탈을, 후기에는 그리스도의 탈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 가면의 이용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예수의 탈 이용은 오히려 그의 신경증적 자아분열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그의 옥중기인 *De Profundis*에서 와일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덴디로서의 그를 사랑했던 사회와,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격리된 채 옥중에서 얻은 상실감으로 인해 자애적 신경증을 앓게 된, 바꿔 말하면 자아분열을 겪고 있는 그 자신을 구하고 이상적인 자아를 성취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이 의도는 와일드가 스스로 그리스도 상을 모방하고 그리스도의 탈을 씌워서 성취될 것으로 믿지만 여의치 못함이 드러난다. 와일드는 투사와 내부화의 두가지 방법으로 이상화된 자아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 상의 성취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글러스를 이용했고 결과적으로 그와 더글러스의 관계는 예수와 인간의 관계로 승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취약성이 행동으로는 과장된 숭고한 자아로, 내면적으로는 이상적인 자아추구의 실패로 인해 자아를 평가 절하시킴으로써 자아분열을 심화시키고 말았다.

*The Ballad of Reading Gaol*에서 역시 오스카 와일드는 화자인 죄수(시인)의 눈으로 본 이 시의 중심 인물인 살인범의 모습을 예수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범은 화자의 상상속에서 그와 동일한 인물로 확대되고 나아가서 시인은 예수와의 동일시를 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의 동일시는 와일드의 자아통합을 성취하기 보다 오히려 분열을 촉진시킨다. 살인범과 예수의 동일시는 오히려 화자의 고뇌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살인범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죄수(시인) 자신의 투옥의 수치에 대한 강조는 결국은 그리스도 상을 얻는 데까지 승화하지 못하고 스스로 추락해 버린다.

따라서 와일드는 실추되고 신경증으로 분열된 자아를 예수의 탈로써 승화시켜 치유를 꾀해 보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함으로써 스스로 분열된 자아를 악화시키고 자아완성의 실패를 결과하고 말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일드는 자아완성의 도정에서 쉽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이덴티티의 추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엄숙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댄디로서, 유태주의자로서 와일드가 보여준 독보적 존재성은 급기야는 그리스도 상을 추구하는데 까지 이어지지만 그의 말로가 보여주는 추락은 이카리우스의 추락 이상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Works Cited

- 1) Cohen, Philip. *The Moral Vision of Oscar Wilde*. Rutherford, New Jersey : Airleigh Dickenson University, 1978
- 2) Ellmann, Richard. *Oscar Wilde*. London : Alfred A Knopf, 1988.
- 3) Gagnier, Regenia. ed. *Critical Essays on Oscar Wilde*. New York : G. K. Hall & Co., 1991.
- 4) \_\_\_\_\_, *Idylls of the Market Place : Oscar Wilde and the Victorian Public* :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 5) Goodman, Lawrence F. *Oscar Wilde's Literature : Masking Narcissistic Anxie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4.
- 6) Kohl, Nobert, *Oscar Wilde : The Works of a Conformist Rebel*. trans. David Henry Wils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7) Kohut, Heinz.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1971.
- 8) \_\_\_\_\_, "The Two Analyses of Mr. Z".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1979) 60, 3 : 2 - 27.
- 9) Moers, Ellen, *The Dandy : Brummel to Beerbohm*. New York : Viking Press, 1960.
- 10) San Juan Jr., Epifanio. *The Art of Oscar Wild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11) Sedgwick, Eve. *Epistemology of the Close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12) Wilde, Oscar. *The complete Works of Oscar Wilde*. ed. J. B. Foreman.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89.
- 13) \_\_\_\_\_, *The Letters of Oscar Wilde*. ed. Rupert Hart - Davis. New York : Jarcpirt, Brace & World, 1962.